

정책자료 2015-07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이삼식·최효진

【책임연구자】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저서】

저출산고령사회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심층 사례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공저)

【공동연구진】

최효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정책자료 2015-07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발행일 2015년 12월 31일

저자 이삼식

발행인 김상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층~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정가 비매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ISBN 978-89-6827-323-0 93330

발간사 <<

한국사회는 현재 초저출산현상을 겪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 까지 약 15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초저출산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도 있다는 우려이다. 초저출산현상이 장기화될수록 미래에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인구구조의 고령화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인구 변동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을 추진한 바 있으며, 내년부터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 성과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실적이나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평가 이외 정책 추진과정이나 전달체계 및 국민의 인식 내지 욕구에 대한 모니터링도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 본 사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래 가임세대인 청소년의 인식, 국민의 정책 욕구, 전달체계의 장애요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동 보고서가 정책 및 전달체계 개선 등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사업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한국교원대학교 차우규 교수, 중고등학교 교사, 지자체 및 시민사회단체 담당자에게 감사드린다.

201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4
제3절 연구방법	5
제2장 청소년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인식 모니터링	9
제1절 결혼에 대한 태도	11
제2절 자녀에 대한 태도	19
제3절 저출산현상에 대한 태도	28
제4절 학교의 인구교육에 대한 태도	32
제5절 소결	38
제3장 저출산·고령화 대응 관련 국민 욕구 모니터링	43
제1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미래 사회 위험에 대한 인식	45
제2절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책에 대한 인식	47
제3절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인식	53
제4절 결혼 및 출산 관련 태도	61
제4장 저출산대책 전달체계 상 장애요인 모니터링	65
제1절 지자체 저출산대책 추진 상 장애요인	67
제2절 민간단체의 저출산 대응 활동 관련 장애요인	72

제5장 결 론	79
---------------	----

부 록	85
-----------	----

부록 1. 청소년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인식조사 조사표	85
-------------------------------------	----

부록 2. 저출산·고령화 대응 관련 국민 욕구 조사 조사표	90
--	----

표 목차

〈표 1- 1〉 청소년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인식 조사 대상자의 일반 특성	6
〈표 1- 2〉 저출산·고령화 대응 관련 국민육구조사 대상자의 일반 특성	7
〈표 2- 1〉 향후 결혼 의향에 대한 태도	12
〈표 2- 2〉 ‘결혼할 때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태도	13
〈표 2- 3〉 ‘결혼식은 호화롭게 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태도	13
〈표 2- 4〉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는 견해에 대한 태도	15
〈표 2- 5〉 ‘남자들은 지금보다 집안일을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태도	16
〈표 2- 6〉 ‘결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견해에 대한 태도	17
〈표 2- 7〉 ‘내가 하고 싶은 공부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에 대한 태도	18
〈표 2- 8〉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19
〈표 2- 9〉 자녀가 반드시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이유	21
〈표 2-10〉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자녀수에 대한 태도	22
〈표 2-11〉 아들 필요성에 대한 태도	23
〈표 2-12〉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는 견해에 대한 태도	24
〈표 2-13〉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는 견해에 대한 태도	25
〈표 2-14〉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태도	26
〈표 2-15〉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는 견해에 대한 태도	27
〈표 2-16〉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태도	28
〈표 2-17〉 저출산현상과 그 문제에 대해 들어본 경험	29
〈표 2-18〉 저출산현상과 그 문제점에 대해 접한 사람 및 매체	30
〈표 2-19〉 저출산현상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31
〈표 2-20〉 저출산현상과 본인과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	32
〈표 2-21〉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 만혼 및 비혼 현상에 대해 접한 경험	33

〈표 2-22〉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 저출산현상 및 그 문제에 대해 접한 경험	34
〈표 2-23〉 교과서를 통해 저출산현상 및 그 문제에 대해 접한 경험	35
〈표 2-24〉 학교에서 결혼, 출산, 자녀양육 관련 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36
〈표 2-25〉 학교에서 결혼, 출산, 자녀양육 관련 학습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 ...	37
〈표 3- 1〉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위험 중 가장 위험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에 대한 인식	46
〈표 3- 2〉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발생할 위험이 누구의 문제인가에 대한 인식	47
〈표 3- 3〉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인식	48
〈표 3- 4〉 저출산 대응 정책 중 잘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	50
〈표 3- 5〉 고령화 대응 정책 중 잘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	51
〈표 3- 6〉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 중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인식	53
〈표 3- 7〉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극복 가능성에 대한 인식	54
〈표 3- 8〉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노력이 필요한 주체에 대한 인식 ...	55
〈표 3- 9〉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위해 가장 노력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인식	56
〈표 3-10〉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1순위)	57
〈표 3-11〉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2순위)	58
〈표 3-12〉 고령자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1순위)	60
〈표 3-13〉 고령자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2순위)	61
〈표 3-14〉 미혼층의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주된 이유	62
〈표 3-15〉 기혼층의 현 자녀수별 추가출산 중단 이유	63

제 1 장

서론

제1절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제3절 연구방법

제1절 배경 및 목적

- 저출산현상 장기화와 그에 따른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0조)에 의거하여 매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성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환류(feedback)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

- 이와 같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하여 ‘계획 수립-성과 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정책의 방대성 등으로 인하여 저출산대책 등의 추진과정에서 실질적 정책 대상으로서 국민(코호트, 사회경제적 집단 등)과 이해당사자(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그리고 정책을 수행하는 공급자(전달체계) 역할을 하고 있는 중앙정부, 지자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미흡한 상황
- 이러한 정책 집행 모니터링은 특정한 연구 수행이나 설문조사 등으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 일정한 주제에 대한 심층연구나 설문조사는 관련 주제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은 가능하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나 전달체계 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 이에 따라 본 사업은 정책 실행과정에서 대상집단(국민)의 인식(이해), 만족도, 실천의향 등을 파악하고, 이해관계자(기업 등)나 전달체계 상 기관(조직)의 문제점 내지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정책 개선 등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함
- 2015년도 모니터링 사업에서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일반국민의 인식, 청소년층의 인식, 전달체계 종사자의 의견 등을 모니터링함
- 특히, 저출산현상 극복을 위한 관심 영역(원인 등)에 대해 모니터링함

제2절 연구 내용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관련 국민의 인식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결혼, 출산 및 자녀양육 관련 인식과 태도 파악
 - 고령사회 대응 관련 인식과 형태 파악
- 미래 가임세대인 청소년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과 인구교육 필요성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
 -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인식, 가치관, 욕구 등 파악
 -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의 현황, 문제점, 인구교육 욕구 등 파악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실행관련 전달체계 상 장애요인, 극복방법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지자체 저출산대책 담당기관이 직면하고 있는 장애요인 파악
 - 저출산대응 관련 인식개선 추진 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장애요인 등 파악

제3절 연구방법

- 청소년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인식 조사 실시
 - 조사목적 : 미래 가임세대로서 청소년들의 저출산 관련 인식 파악
 - 조사일정 : 2015.10.8.~2015.10.20. 일 약 2주간 실시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우편조사 실시(조사대상 학생의 자기기입방식 적용)
 - 응답오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사 실시에 앞서 각 학교 교사를 통해 설문문항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였으며, 교사의 지도 하에 조사 실시
 - 조사대상
 - 12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3학년 학생, 8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2학년 학생
 - 전체 조사 응답자는 1,179명이며, 남성 50.2%, 여성 49.8%
 - 학년별로는 중학교 재학 59.1%, 고등학교 재학 40.9%

6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표 1-1〉 청소년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인식 조사 대상자의 일반 특성

(단위: %, 명)

구분	빈도	(명)
전체	100.0	(1,179)
성별		
남성	50.2	(592)
여성	49.8	(587)
학년		
중학교 1학년	19.2	(226)
중학교 2학년	20.2	(238)
중학교 3학년	19.8	(233)
고등학교 1학년	23.4	(276)
고등학교 2학년	17.5	(206)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청소년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인식」 조사 분석 결과

□ 저출산·고령화 대응 관련 국민욕구 조사 실시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관련 주요 쟁점 및 정책 현안(2~4개 쟁점 또는 정책현안을 선정)을 조사주제로 선정
 - 조사 주제는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사회현상 급변, 언론(여론), 외국동향, 전문가회의, 관련부처 담당자와의 실무협의 등을 통해 선정
- 조사일정은 2015.1.15.~1.21일로 약 일주일 정도 소요
- 조사내용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주요 쟁점 및 정책 현안과 관련하여 원인, 태도 및 이유, 만족도, 욕구 등을 조사
 - 조사표(조사항목)는 사전 질적 조사, 전문가 회의, 관련부처 담당자와의 실무협의 등을 통해 확정

- 조사대상은 지역(권역별), 성, 연령(10세 간격), 결혼여부를 기준으로 층화추출을 하여 총 1,0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였음.

〈표 1-2〉 저출산·고령화 대응 관련 국민육구조사 대상자의 일반 특성

(단위: %, 명)

	구성비(%)	사례수
전체	100.0	1,000
성별		
남성	50.8	508
여성	49.2	492
연령대		
20대	19.8	198
30대	21.1	211
40대	24.2	242
50대	22.2	222
60대	12.7	127
결혼여부		
기혼	74	740
미혼	26	260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화 대응 관련 국민 육구 조사」 분석 결과

□ 전달체계 상 조직의 종사자 대상 심층면접 실시

- 연구진이 지자체 2개 지역과 민간단체 1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실시
- 경상북도 관할 2개 기초지자체(시지역, 군지역)의 저출산대책 담당 부서 대상 심층면접
 - 시지역의 경우 과장과 계장과 실무자 2인
 - 군지역의 경우 계장과 실무자 2인
 - 서울시 소재 1개 민간단체의 저출산 관련 홍보 담당부서(부장, 팀장) 대상 심층면접

제 2 장

청소년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인식 모니터링

제1절 결혼에 대한 태도

제2절 자녀에 대한 태도

제3절 저출산현상에 대한 태도

제4절 학교의 인구교육에 대한 태도

제5절 소결

2

청소년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인식 모니터링

제1절 결혼에 대한 태도

□ 향후 본인의 결혼 의향에 관한 태도

- 전체 응답 학생들의 73.0%는 향후 결혼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
 - 8.1%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8.8%는 결정을 유보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남학생의 경우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4.8%,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7%,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19.4%로 나타남.
 - 여학생의 경우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1.2%,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0.6%,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18.3%로 나타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비율은 학년이 높아 질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구체적으로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비율은 중학교 1학년 3.5%, 중학교 2학년 5.9%, 중학교 3학년 8.2%, 고등학교 1학년 10.1%, 고등학교 2학년 13.1% 등으로 나타남.

12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표 2-1〉 향후 결혼 의향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결혼할 생각이 있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	모르겠다	계	(명)
전체	73.0	8.1	18.8	100.0	(1,179)
성별($\chi^2=9.2^*$)					
남성	74.8	5.7	19.4	100.0	(592)
여성	71.2	10.6	18.3	100.0	(586)
학년($\chi^2=33.4^{***}$)					
중학교 1학년	70.8	3.5	25.7	100.0	(226)
중학교 2학년	75.6	5.9	18.5	100.0	(238)
중학교 3학년	68.7	8.2	23.2	100.0	(233)
고등학교 1학년	78.3	10.1	11.6	100.0	(276)
고등학교 2학년	70.4	13.1	16.5	100.0	(206)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청소년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인식」 조사 분석 결과

□ 결혼에 관한 태도 : “결혼할 때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를 마련해야 한다”

- 전체 응답자의 74.3%는 동 문항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응답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관계없이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라는 관념에 반대하는 경향이 더욱 강함을 알 수 있음.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2학년을 제외하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반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구체적으로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에 대해 반대하는 비율은 중학교 1학년 65.8%, 중학교 2학년 69.7%, 중학교 3학년 75.4%, 고등학교 1학년 81.4% 등으로 나타남.

〈표 2-2〉 ‘결혼할 때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전체	2.3	23.5	52.5	21.7	100.0	(1,174)
성별($\chi^2=7.4$)						
남성	3.2	24.6	52.5	19.7	100.0	(590)
여성	1.4	22.3	52.5	23.8	100.0	(583)
학년($\chi^2=24.8^*$)						
중학교 1학년	2.2	32.0	45.8	20.0	100.0	(225)
중학교 2학년	2.9	27.3	47.9	21.8	100.0	(238)
중학교 3학년	1.3	23.3	52.2	23.3	100.0	(232)
고등학교 1학년	1.8	16.8	59.5	21.9	100.0	(274)
고등학교 2학년	3.4	19.0	56.1	21.5	100.0	(205)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청소년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인식」 조사 분석 결과

□ 결혼에 관한 태도 : “결혼식은 호화롭게 해야 한다”

- 전체 응답자의 37.4%(매우 찬성 8.2%)는 동 문항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인 경우 호화로운 결혼식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학교급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저학년으로 갈수록 결혼식은 호화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3〉 ‘결혼식은 호화롭게 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전체	8.2	29.2	45.6	17.0	100.0	(1,176)

1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성별($\chi^2=15.8^{**}$)						
남성	10.8	30.2	44.6	14.4	100.0	(590)
여성	5.5	28.2	46.7	19.7	100.0	(585)
학년($\chi^2=54.6^{***}$)						
중학교 1학년	12.9	37.8	40.9	8.4	100.0	(225)
중학교 2학년	11.3	31.9	42.0	14.7	100.0	(238)
중학교 3학년	6.5	31.5	47.4	14.7	100.0	(232)
고등학교 1학년	4.7	22.5	50.5	22.2	100.0	(275)
고등학교 2학년	6.3	22.8	46.1	24.8	100.0	(206)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청소년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인식」 조사 분석 결과

- 결혼에 관한 태도 :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 전체 응답자의 83.2%(전혀 찬성하지 않음 38.5%)가 전통적 성 역할 분업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경향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여학생의 91.3%가 전통적 성 역할 분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남학생의 75.2%가 반대)
- 학교급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고학년으로 갈수록 동 문항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
 -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88.8%, 고등학교 1학년 87.3%, 중학교 3학년 82.3%, 중학교 2학년 83.1%, 중학교 1학년 7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4〉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는 견해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전체	2.1	14.7	44.6	38.5	100.0	(1,174)
성별($\chi^2=88.8^{***}$)						
남성	3.6	21.2	48.0	27.2	100.0	(589)
여성	0.7	8.0	41.3	50.0	100.0	(584)
학년($\chi^2=46.4^{***}$)						
중학교 1학년	4.4	21.8	41.3	32.4	100.0	(225)
중학교 2학년	3.4	13.5	46.0	37.1	100.0	(237)
중학교 3학년	0.9	16.8	51.3	31.0	100.0	(232)
고등학교 1학년	1.5	11.3	46.2	41.1	100.0	(275)
고등학교 2학년	0.5	10.7	37.1	51.7	100.0	(205)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청소년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인식」 조사 분석 결과

□ 결혼에 관한 태도 : “남자들은 지금보다 집안일을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

- “남자들은 지금보다 집안일을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7.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남성의 가사참여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남학생의 61.6%, 여학생의 73.5%가 남성의 가사참여가 현재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고 응답
- 학교급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고학년으로 갈수록 남성의 가사참여 증가에 대하여 찬성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
 -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78.2%, 고등학교 1학년 73.4%,

중학교 3학년 62.5%, 중학교 2학년 61.4%, 중학교 1학년 6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5〉 ‘남자들은 지금보다 집안일을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전체	11.3	56.2	26.2	6.3	100.0	(1,173)
성별($\chi^2=30.5^{***}$)						
남성	7.3	54.3	30.8	7.7	100.0	(588)
여성	15.4	58.0	21.6	5.0	100.0	(584)
학년($\chi^2=31.0^{**}$)						
중학교 1학년	9.8	52.4	28.0	9.8	100.0	(225)
중학교 2학년	11.0	50.4	31.4	7.2	100.0	(236)
중학교 3학년	8.6	53.9	30.6	6.9	100.0	(232)
고등학교 1학년	11.7	61.7	21.9	4.7	100.0	(274)
고등학교 2학년	16.0	62.1	18.9	2.9	100.0	(206)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청소년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인식」 조사 분석 결과

□ 결혼에 관한 태도 : “결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 전체 응답자의 52.6%는 동 문항에 찬성을 하고 있으며, 47.4%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학생은 동 문항에 반대하는 경향이 더 높으나, 여학생은 찬성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남.

- 남학생의 경우 동 문항에 대한 찬성 비율이 43.0%(매우 찬성 9.7%)이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찬성 비율이 62.4%(매우 찬성 15.7%)로 나타남.

- 학교급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에 찬성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
 - 고등학교 2학년 63.6%, 고등학교 1학년 49.5%, 중학교 3학년 56.3%, 중학교 2학년 49.6%, 중학교 1학년 46.2%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6〉 ‘결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견해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전체	12.7	40.0	34.1	13.2	100.0	(1,175)
성별($\chi^2=69.9^{***}$)						
남성	9.7	33.3	36.7	20.4	100.0	(589)
여성	15.7	46.7	31.6	6.0	100.0	(585)
학년($\chi^2=30.3^{**}$)						
중학교 1학년	8.0	38.2	35.1	18.7	100.0	(225)
중학교 2학년	13.0	36.6	33.2	17.2	100.0	(238)
중학교 3학년	13.9	42.4	34.6	9.1	100.0	(231)
고등학교 1학년	11.6	37.8	37.8	12.7	100.0	(275)
고등학교 2학년	17.5	46.1	28.6	7.8	100.0	(206)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청소년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인식」 조사 분석 결과

- 결혼에 관한 태도 : “내가 하고 싶은 공부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전체 응답자의 63.6%(매우 찬성 15.7%)가 학업이나 일에 대한 성취를 위하여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동 문항에 찬성하는 경향이 더욱 높게 나타남.

- 남학생의 경우에는 51.2%(매우 찬성 11.7%)가 학업이나 일에 대한 성취로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76.1%(매우 찬성 19.8%)로 나타남.

○ 학교급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동문향에 대한 찬성 정도가 높게 나타남.

-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74.1%, 고등학교 1학년 66.5%, 중학교 3학년 65.2%, 중학교 2학년 58.2%, 중학교 1학년 54.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7〉 '내가 하고 싶은 공부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전체	15.7	47.9	25.9	10.5	100.0	(1,171)
성별($\chi^2=69.9^{***}$)						
남성	11.7	39.5	33.7	15.1	100.0	(588)
여성	19.8	56.4	18.0	5.8	100.0	(582)
학년($\chi^2=30.3^{**}$)						
중학교 1학년	13.4	41.1	31.3	14.3	100.0	(224)
중학교 2학년	16.0	42.2	29.1	12.7	100.0	(237)
중학교 3학년	14.3	50.9	27.0	7.8	100.0	(230)
고등학교 1학년	13.8	52.7	22.5	10.9	100.0	(275)
고등학교 2학년	22.0	52.2	19.5	6.3	100.0	(205)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청소년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인식」 조사 분석 결과

제2절 자녀에 대한 태도

□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 전체 응답자의 55.2%는 어른이 되면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
 -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1.2%, 모르겠다는 응답은 23.6%로 나타남.
-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자녀 필요성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남학생의 경우에는 60.6%가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여 절반 이상이 자녀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나, 여학생의 경우 그 비율은 49.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또한 여학생의 1/3 정도(28.7%)는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
- 학교급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35.0%, 고등학교 1학년 20.7%, 중학교 3학년 24.1%, 중학교 2학년 15.5%, 중학교 1학년 1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8〉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어른이 되면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				계	(명)
	예	아니오	아직 모르겠다			
전체	55.2	21.2	23.6	100.0	(1,177)	

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구분	어른이 되면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				(명)
	예	아니오	아직 모르겠다	계	
성별($\chi^2=39.7^{***}$)					
남성	60.6	13.7	25.7	100.0	(591)
여성	49.7	28.7	21.5	100.0	(585)
학년($\chi^2=68.0^{***}$)					
중학교 1학년	51.3	11.9	36.7	100.0	(226)
중학교 2학년	57.6	15.5	26.9	100.0	(238)
중학교 3학년	53.4	24.1	22.4	100.0	(232)
고등학교 1학년	64.0	20.7	15.3	100.0	(275)
고등학교 2학년	47.1	35.0	18.0	100.0	(206)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청소년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인식」 조사 분석 결과

□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이유

○ 앞서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내 일에 전념하고 싶어서’가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26.8%,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담’ 12.3%, ‘부부만의 시간 및 행복 감소’ 1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타’에 대한 응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산은 개인의 자유이며 선택의 문제’, ‘나의 행복이 우선’, ‘반드시 가져야 할 이유는 없음’, ‘아이 낳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아이 기르는 책임감에 대한 부담’ 등을 응답

○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학생은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40.3%)’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내 일에 전념 희망(18.2%)’, ‘부부만의 시간 및 행복 감소(11.7%)’ 등의 순으로 나타나나,

- 여학생의 경우에는 ‘내 일에 전념 희망(35.4%)’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20.3%)’,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담(14.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교급별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음.

(표 2-9) 자녀가 반드시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이유

(단위: %, 명)

구분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부부만의 시간·행복 축소	내 일에 전념 희망	자녀의 학업 염려	부모역할 부담	기타	계	(명)
전체	26.8	10.6	29.8	3.4	12.3	17.0	100.0	(235)
성별($\chi^2=16.0^{**}$)								
남성	40.3	11.7	18.2	5.2	7.8	16.9	100.0	(77)
여성	20.3	10.1	35.4	2.5	14.6	17.1	100.0	(158)
학년($\chi^2=22.6$)								
중학교 1학년	33.3	11.1	18.5	3.7	14.8	18.5	100.0	(27)
중학교 2학년	17.1	8.6	28.6	5.7	11.4	28.6	100.0	(35)
중학교 3학년	33.3	18.5	25.9	3.7	9.3	9.3	100.0	(54)
고등학교 1학년	31.5	7.4	38.9	0.0	7.4	14.8	100.0	(55)
고등학교 2학년	20.0	7.7	30.8	4.6	18.5	18.5	100.0	(65)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청소년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인식」 조사 분석 결과

□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자녀 수

○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자녀수를 질문한 결과, 57.0%가 2명이라고 응답하였고, 아직 모르겠음 18.8%, 3명 15.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무자녀를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0.3%로 낮은 수준

○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학생은 2명(54.9%), 모르겠음(23.4%), 3명(13.3%), 1명(4.6%), 5명 이상(2.0%)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여학의 경우에는 2명(59.1%), 3명(17.1%), 모르겠음(14.1%), 4명(4.0%), 2명(3.4%) 등의 순으로 나타남.

22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 남학생의 경우 1자녀 이하(무자녀 포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여학생의 경우 2명 이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교급별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음.

〈표 2-10〉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자녀수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모르겠음	계	(명)
전체	0.3	4.0	56.9	15.2	2.8	2.0	18.8	100.0	(1,075)
성별($\chi^2=22.2^{**}$)									
남성	0.2	4.6	54.9	13.3	1.7	2.0	23.4	100.0	(543)
여성	0.4	3.4	59.1	17.1	4.0	1.9	14.1	100.0	(531)
학년($\chi^2=34.5$)									
중학교 1학년	0.0	1.9	58.4	13.4	1.0	1.9	23.4	100.0	(209)
중학교 2학년	0.0	5.1	60.6	14.4	2.3	1.4	16.2	100.0	(216)
중학교 3학년	0.0	3.2	52.5	14.6	1.8	2.3	25.6	100.0	(219)
고등학교 1학년	0.8	4.9	56.3	15.4	4.9	2.8	15.0	100.0	(247)
고등학교 2학년	0.5	4.9	57.1	18.5	3.8	1.6	13.6	100.0	(184)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청소년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인식」 조사 분석 결과

□ 아들 필요성에 대한 태도

- 아들이 반드시 필요하는가를 질문한 결과 27.7%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50.0%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아들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남학생의 34.9%, 여학생의 20.5%가 아들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아들을 꼭 두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남.
- 고등학교 2학년 62.6%, 고등학교 1학년 52.7%, 중학교 3학년 51.1%, 중학교 2학년 47.2%, 중학교 1학년 37.2% 순으로 나타남.

〈표 2-11〉 아들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아들을 꼭 두어야 한다				(명)
	예	아니오	아직 모르겠다	계	
전체	27.7	50.0	22.3	100.0	(1,168)
성별($\chi^2=58.6^{***}$)					
남성	34.9	39.0	26.1	100.0	(590)
여성	20.5	61.2	18.4	100.0	(577)
학년($\chi^2=42.3^{***}$)					
중학교 1학년	28.3	37.2	34.5	100.0	(226)
중학교 2학년	30.2	47.2	22.6	100.0	(235)
중학교 3학년	28.1	51.1	20.8	100.0	(231)
고등학교 1학년	30.8	52.7	16.5	100.0	(273)
고등학교 2학년	19.7	62.6	17.7	100.0	(203)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청소년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인식」 조사 분석 결과

- 자녀에 대한 태도 :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
-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1.8%가 찬성(매우 찬성 48.1%)한다고 응답
 - 성별 및 학교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데, 이는 부모됨의 가치에 대해 성이나 학년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

2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표 2-12〉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는 견해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전체	47.0	44.7	7.0	1.3	100.0	(1,178)
성별($\chi^2=2.4$)						
남성	48.1	44.7	6.4	0.8	100.0	(591)
여성	46.1	44.7	7.5	1.7	100.0	(586)
학년($\chi^2=18.1$)						
중학교 1학년	41.6	50.4	7.5	0.4	100.0	(226)
중학교 2학년	54.6	38.2	5.9	1.3	100.0	(238)
중학교 3학년	45.7	44.0	9.5	0.9	100.0	(232)
고등학교 1학년	47.5	46.0	5.4	1.1	100.0	(276)
고등학교 2학년	45.1	45.1	6.8	2.9	100.0	(206)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청소년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인식」 조사 분석 결과

□ 자녀에 대한 태도 :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9.3%가 찬성(매우 찬성 30.3%)한다고 응답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급별 차이를 살펴보면 뚜렷한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고, 중학교 2학년(88.2%), 고등학교 1학년(80.0%), 중학교 1학년(77.4%), 중학교 3학년(76.3%), 고등학교 2학년(73.3%) 등의 순으로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는 문항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임.

〈표 2-13〉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는 견해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전체	30.2	49.0	18.0	2.7	100.0	(1,177)
성별($\chi^2=0.7$)						
남성	31.2	47.8	18.3	2.7	100.0	(590)
여성	29.4	50.2	17.7	2.7	100.0	(586)
학년($\chi^2=31.5^{**}$)						
중학교 1학년	27.4	50.0	20.4	2.2	100.0	(226)
중학교 2학년	37.0	51.3	10.1	1.7	100.0	(238)
중학교 3학년	28.0	48.3	22.0	1.7	100.0	(232)
고등학교 1학년	28.0	52.0	17.8	2.2	100.0	(275)
고등학교 2학년	31.1	42.2	20.4	6.3	100.0	(206)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청소년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인식」 조사 분석 결과

□ 자녀에 대한 태도 :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8.4%가 찬성(매우 찬성 16.2%)한다고 응답
-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동 문항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남학생의 74.9%가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응답한 반면, 여학생의 경우 그 비율은 61.8%로 나타남.
- 학교급별 차이를 살펴보면 저학년으로 갈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26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 중학교 1학년 76.1%, 중학교 2학년 70.2%, 중학교 3학년 68.5%, 고등학교 1학년 66.2%, 고등학교 2학년 60.7% 등의 순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2-14〉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전체	16.1	52.3	27.1	4.5	100.0	(1,177)
성별($\chi^2=31.0^{***}$)						
남성	20.5	54.4	21.5	3.6	100.0	(590)
여성	11.8	50.0	32.8	5.5	100.0	(586)
학년($\chi^2=30.9^{**}$)						
중학교 1학년	21.7	54.4	22.1	1.8	100.0	(226)
중학교 2학년	20.2	50.0	23.5	6.3	100.0	(238)
중학교 3학년	12.9	55.6	27.6	3.9	100.0	(232)
고등학교 1학년	10.9	55.3	29.8	4.0	100.0	(275)
고등학교 2학년	16.0	44.7	32.5	6.8	100.0	(206)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청소년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인식」 조사 분석 결과

- 자녀에 대한 태도 :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1.7%가 찬성(매우 찬성 12.4%)한다고 응답
 -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56.5%(매우 찬성 16.0%), 여학생의 46.8%(매우 찬성 8.9%)가 동 문항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급별 차이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2학년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저학년층으로 갈수록 자녀를 갖는 것을 사회에 대한 의무로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남.

- 중학교 1학년 60.0%, 중학교 2학년 57.6%, 중학교 3학년 47.8%, 고등학교 1학년 47.6%, 고등학교 2학년 45.9% 등의 순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2-15〉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는 견해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전체	12.4	39.3	38.0	10.2	100.0	(1,175)
성별($\chi^2=22.4***$)						
남성	16.0	40.6	36.0	7.5	100.0	(589)
여성	8.9	37.9	40.2	13.0	100.0	(585)
학년($\chi^2=32.3**$)						
중학교 1학년	16.0	44.0	33.8	6.2	100.0	(225)
중학교 2학년	18.9	38.7	34.9	7.6	100.0	(238)
중학교 3학년	11.2	36.6	40.9	11.2	100.0	(232)
고등학교 1학년	8.4	39.3	40.7	11.6	100.0	(275)
고등학교 2학년	7.8	38.0	39.5	14.6	100.0	(205)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청소년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인식」 조사 분석 결과

- 자녀에 대한 태도 :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
 -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5.5%가 찬성(매우 찬성 3.4%)한다고 응답
 -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동 문항에 대한 찬성 정도(남학생 34.2%, 여학생 36.8%)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매우 찬성한다는 비율은 여학생(3.4%)에 비해 남학생(7.3%)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교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음.

〈표 2-16〉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전체	5.4	30.2	48.0	16.4	100.0	(1,176)
성별($\chi^2=15.1^{**}$)						
남성	7.3	26.9	50.7	15.1	100.0	(590)
여성	3.4	33.3	45.5	17.8	100.0	(585)
학년($\chi^2=12.7$)						
중학교 1학년	6.6	25.7	47.3	20.4	100.0	(226)
중학교 2학년	7.1	28.2	48.7	16.0	100.0	(238)
중학교 3학년	5.2	29.3	50.0	15.5	100.0	(232)
고등학교 1학년	3.6	33.8	49.1	13.5	100.0	(275)
고등학교 2학년	4.4	33.7	44.4	17.6	100.0	(205)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청소년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인식」 조사 분석 결과

제3절 저출산현상에 대한 태도

□ 저출산현상에 대한 인식

-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적게 낳는 현상(저출산현상)과 그 문제점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9.1%는 자주 들어보았다고 응답하였으며, 27.5%는 가끔 들어보았다고 응답
 - 별로 들어보지 못하였거나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4%로 거의 대부분이 저출산현상과 그 문제점에 대해 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동 문항에 대하여 자주 들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학교급별로는 저출산 현상 및 그 문제에 대해 별로 들어보지 못하였거나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7〉 저출산현상과 그 문제에 대해 들어본 경험

(단위: %, 명)

구분	자주 들어 보았다	가끔 들어 보았다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계	(명)
전체	69.1	27.5	2.4	1.0	100.0	(1,176)
성별($\chi^2=20.5^{***}$)						
남성	63.9	31.2	3.7	1.2	100.0	(590)
여성	74.5	23.8	1.0	0.7	100.0	(585)
학년($\chi^2=40.7^{***}$)						
중학교 1학년	61.3	29.8	5.8	3.1	100.0	(225)
중학교 2학년	72.3	26.5	1.3	0.0	100.0	(238)
중학교 3학년	63.4	32.8	3.0	0.9	100.0	(232)
고등학교 1학년	76.4	22.2	0.7	0.7	100.0	(275)
고등학교 2학년	70.9	27.2	1.5	0.5	100.0	(206)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청소년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인식」 조사 분석 결과

□ 저출산현상 및 그 문제를 접한 사람 및 매체

- 앞서 저출산 현상 및 그 문제에 대해 가끔 또는 자주 들어본 경험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누구 또는 무엇을 통해 접하였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TV’가 77.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교과서(68.2%)’, ‘인터넷(66.6%)’, ‘선생님(62.4%)’,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4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의 패턴은 전체와 유사하게 나타남.

- 학교급별로는 TV 및 인터넷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대체적으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나고, 선생님, 교과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대체적으로 저학년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남.

〈표 2-18〉 저출산현상과 그 문제점에 대해 접한 사람 및 매체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명)
전체	62.4	16.7	8.1	41.9	68.2	5.9	77.0	66.6	1.1	(1,179)
성별										
남성	60.1	15.2	8.5	34.4	62.8	6.2	75.5	62.3	1.9	(567)
여성	64.6	18.2	7.8	49.3	73.6	5.6	78.5	70.8	0.3	(576)
학년										
중학교 1학년	78.2	18.4	8.7	28.6	72.3	4.9	71.4	49.5	1.5	(206)
중학교 2학년	64.6	18.1	6.8	40.5	73.4	5.1	75.9	66.7	1.3	(237)
중학교 3학년	48.7	14.2	4.4	38.9	55.8	4.0	79.6	68.1	1.8	(226)
고등학교 1학년	65.3	14.4	8.9	43.5	72.3	6.3	74.9	69.4	0.4	(271)
고등학교 2학년	55.2	19.2	12.3	58.1	66.5	9.4	83.7	78.3	1.0	(203)

주: 1) ① 선생님, ② 가족, ③ 친구, ④신문·잡지 등 인쇄매체, ⑤ 교과서, ⑥ 라디오, ⑦ TV, ⑧ 인터넷, ⑨ 기타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청소년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인식」 조사 분석 결과

□ 저출산현상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 저출산현상의 심각성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5.6%는 심각하다(매우 심각하다 26.0%)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저출산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유사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학교급별로는 매우 심각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은 중학교 3학년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저학년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남.

〈표 2-19〉 저출산현상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다소 심각한 문제이다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전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모르겠다	전체	(명)
전체	26.0	59.6	6.4	1.3	6.7	100.0	(1,179)
성별($\chi^2=1.9$)							
남성	25.7	58.7	7.1	1.5	6.9	100.0	(591)
여성	26.2	60.7	5.6	1.0	6.5	100.0	(585)
학년($\chi^2=27.8^*$)							
중학교 1학년	30.1	52.2	6.2	2.2	9.3	100.0	(226)
중학교 2학년	31.1	57.6	5.5	1.3	4.6	100.0	(238)
중학교 3학년	19.7	61.8	8.2	0.4	9.9	100.0	(233)
고등학교 1학년	25.0	62.0	6.2	0.7	6.2	100.0	(276)
고등학교 2학년	24.0	64.7	5.9	2.0	3.4	100.0	(204)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청소년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인식」 조사 분석 결과

□ 저출산현상과 본인과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

- 저출산현상과 본인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1.7%는 영향이 있다(매우 영향이 있다 14.8%)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59.1%)에 비하여 여학생(64.2%)이 저출산 현상과 본인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인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매우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16.2%)이 여학생(13.2%)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 학교급별로는 영향이 없다(별로 영향이 없다+전혀 영향이 없다)고 인지하는 비율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남.
 -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저학년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남.

〈표 2-20〉 저출산현상과 본인과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매우 관련 있다	대체로 관련 있다	별로 관련 없다	전혀 관련 없다	모르겠다	전체	(명)
전체	14.8	46.9	20.2	3.3	14.8	100.0	(1,177)
성별($\chi^2=9.7^*$)							
남성	16.2	42.9	21.1	3.0	16.7	100.0	(592)
여성	13.2	51.0	19.3	3.6	12.8	100.0	(584)
학년($\chi^2=33.0^{**}$)							
중학교 1학년	19.5	40.3	16.8	1.3	22.1	100.0	(226)
중학교 2학년	17.3	46.4	19.8	2.1	14.3	100.0	(237)
중학교 3학년	12.4	48.9	19.3	3.4	15.9	100.0	(233)
고등학교 1학년	12.7	49.6	21.4	4.7	11.6	100.0	(276)
고등학교 2학년	12.2	48.8	23.9	4.9	10.2	100.0	(205)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청소년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인식」 조사 분석 결과

제4절 학교의 인구교육에 대한 태도

□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 만혼 및 비혼에 대해 접한 경험

○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선생님으로부터 만혼 및 비혼 현상이나 문제점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토론을 한 경험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2.0%가 경험이 있다(자주 경험+가끔 경험)고 응답

- 별로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6.1%,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2.0%로 나타남.

-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33.7%)에 비하여 여학생(50.3%)이 수업시간에 선생님을 통해 만혼 및 비혼에 대해 접한 경험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학교급별로는 가끔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체적으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높아짐.

〈표 2-21〉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 만혼 및 비혼 현상에 대해 접한 경험

(단위: %, 명)

구분	자주 경험하였다	가끔 경험하였다	별로 경험하지 않았다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전체	(명)
전체	6.0	36.0	36.1	22.0	100.0	(1,175)
성별($\chi^2=40.0^{***}$)						
남성	4.7	29.0	38.5	27.8	100.0	(590)
여성	7.2	43.2	33.7	15.9	100.0	(584)
학년($\chi^2=55.8^{***}$)						
중학교 1학년	6.2	31.9	35.8	26.1	100.0	(226)
중학교 2학년	4.2	33.8	39.2	22.8	100.0	(237)
중학교 3학년	3.0	27.0	42.1	27.9	100.0	(233)
고등학교 1학년	11.4	45.8	29.7	13.2	100.0	(273)
고등학교 2학년	3.9	40.3	34.5	21.4	100.0	(206)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청소년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인식」 조사 분석 결과

-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 저출산 현상 및 그 문제에 대해 접한 경험
 -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선생님으로부터 저출산 현상이나 문제점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토론을 한 경험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5.2%가 경험이 있다(자주 경험+가끔 경험)고 응답
 - 별로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5.6%,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9.5%로 나타남.

3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39.9%)에 비하여 여학생(50.6%)이 수업시간에 선생님을 통해 저출산 현상 및 그 문제에 대해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학교급별로는 자주 접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고등학교 1학년을 제외하고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낮아짐.

〈표 2-22〉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 저출산현상 및 그 문제에 대해 접한 경험

(단위: %, 명)

구분	자주 경험하였다	가끔 경험하였다	별로 경험하지 않았다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전체	(명)
전체	6.9	38.3	35.4	19.5	100.0	(1,171)
성별($\chi^2=17.8^{***}$)						
남성	5.5	34.4	37.0	23.2	100.0	(587)
여성	8.4	42.2	33.8	15.6	100.0	(583)
학년($\chi^2=40.4^{***}$)						
중학교 1학년	7.1	35.6	34.7	22.7	100.0	(225)
중학교 2학년	5.1	39.8	34.7	20.3	100.0	(236)
중학교 3학년	4.3	32.2	41.2	22.3	100.0	(233)
고등학교 1학년	12.8	44.3	31.1	11.7	100.0	(273)
고등학교 2학년	3.9	38.2	35.8	22.1	100.0	(204)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청소년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인식」 조사 분석 결과

□ 교과서를 통해 저출산 현상 및 그 문제에 대해 접한 경험

- 교과서를 통해 저출산 현상이나 문제점에 대해 학습한 경험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4.9%가 경험이 있다(자주 배웠다 + 가끔 배웠다)고 응답
 - 별로 배우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1.1%, 전혀 배운 적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1%로 나타남.

-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82.0%)에 비하여 여학생(87.9%)이 교과서를 통해 저출산 현상 및 그 문제에 대해 학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학습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90.1%)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 2학년(86.4%), 중학교 1학년(85.8%), 고등학교 2학년(83.0%), 중학교 3학년(77.7%) 순으로 나타남.

〈표 2-23〉 교과서를 통해 저출산현상 및 그 문제에 대해 접한 경험

(단위: %, 명)

구분	자주 배웠다	가끔 배웠다	별로 배우지 않았다	전혀 배운 적이 없다	전체	(명)
전체	31.1	53.8	11.1	4.1	100.0	(1,175)
성별($\chi^2=18.1^{***}$)						
남성	26.5	55.5	12.4	5.6	100.0	(589)
여성	35.7	52.1	9.7	2.4	100.0	(585)
학년($\chi^2=63.6^{***}$)						
중학교 1학년	35.8	50.0	10.2	4.0	100.0	(226)
중학교 2학년	34.7	51.7	9.7	3.8	100.0	(236)
중학교 3학년	16.7	60.9	15.9	6.4	100.0	(233)
고등학교 1학년	43.8	46.4	8.4	1.5	100.0	(274)
고등학교 2학년	20.9	62.1	11.7	5.3	100.0	(206)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청소년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인식」 조사 분석 결과

□ 학교에서 결혼, 출산, 자녀양육 관련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

- 학교에서 결혼, 출산, 자녀양육 관련 학습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6.3%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대체로 필요하다)고 응답

-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1.5%,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1%로 나타남.
-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88.4%)이 여학생(84.4%)에 비해 결혼, 출산, 자녀양육 관련 학습의 필요성을 더욱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별로 필요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이 8.8%인 반면, 여학생은 14.2%로 나타남.
- 학교급별로는 뚜렷한 패턴은 나타나지 않고 중학교 1학년(89.6%)과 고등학교 1학년(89.4%)에서 학습의 필요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 2학년(85.9%), 중학교 3학년(85.6%), 고등학교 2학년(8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습이 필요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체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24〉 학교에서 결혼, 출산, 자녀양육 관련 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전체	(명)
전체	24.5	61.9	11.5	2.1	100.0	(1,164)
성별($\chi^2=15.2^{**}$)						
남성	22.5	66.0	8.8	2.8	100.0	(579)
여성	26.5	57.9	14.2	1.4	100.0	(584)
학년($\chi^2=22.1^*$)						
중학교 1학년	26.1	63.5	8.6	1.8	100.0	(222)
중학교 2학년	25.6	60.3	12.8	1.3	100.0	(234)
중학교 3학년	19.7	65.9	10.9	3.5	100.0	(229)
고등학교 1학년	29.9	59.5	9.1	1.5	100.0	(274)
고등학교 2학년	19.5	60.5	17.1	2.9	100.0	(205)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청소년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인식」 조사 분석 결과

- 학교에서 결혼, 출산, 자녀양육 관련 학습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
- 앞서 학교에서 결혼, 출산, 자녀양육 관련 학습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학교에서 관련된 학습을 통해서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가 44.4%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급별로는 뚜렷한 패턴은 나타나지 않고,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학교 학습을 통해서만 효과가 없을 것 같아가 65.0%로 높고 그 다음으로 결혼할 생각이 없기 때문(15.0%)으로 나타남.
 - 중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결혼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 32.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학교 학습만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22.6%, 입시 공부가 중요하기 때문 19.4% 등으로 나타남.

〈표 2-25〉 학교에서 결혼, 출산, 자녀양육 관련 학습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

(단위: %, 명)

구분	입시 공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할 생각이 없기 때문	학교에서 관련된 학습을 통해서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학교에서 관련된 학습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	기타	전체	(명)
전체	11.1	19.6	44.4	7.2	17.6	100.0	(153)
성별($\chi^2=3.0$)							
남성	13.8	21.5	36.9	7.7	20.0	100.0	(65)
여성	9.2	17.2	50.6	6.9	16.1	100.0	(87)

구분	입시 공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할 생각이 없기 때문	학교에서 관련된 학습을 통해서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학교에서 관련된 학습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	기타	전체	(명)
학년($\chi^2=27.6^*$)							
중학교 1학년	17.4	13.0	47.8	8.7	13.0	100.0	(23)
중학교 2학년	12.5	21.9	40.6	6.3	18.8	100.0	(32)
중학교 3학년	19.4	32.3	22.6	16.1	9.7	100.0	(31)
고등학교 1학년	7.4	14.8	40.7	3.7	33.3	100.0	(27)
고등학교 2학년	2.5	15.0	65.0	2.5	15.0	100.0	(40)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청소년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인식」 조사 분석 결과

제5절 소결

1. 모니터링 결과 요약

- 응답 청소년 중의 상당수(70%)는 결혼의향이 있으나, 결혼의향이 없거나 유보하는 비율도 낮지 않은 수준
 - 특히,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에게서 그리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남.
- 허례허식의 결혼문화(호화로운 결혼식, 남자는 집-여자는 혼수)에 대해서는 약 70% 정도가 반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고학년층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남.
- 전통적 성역할 분업(남자는 일, 여자는 집안일)에 대해서는 상당수(80%수준)가 반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여학생에게서

그리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남.

- 남성의 가사참여가 현재보다 증가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반대보다 찬성하는 경향이 높았으나, 그 비율은 67.5%로 나타남.
- 응답 청소년의 절반 정도(50~60%)는 공부나 일 등으로 결혼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
- 청소년의 절반 정도(55%)는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0%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
 - 자녀가 없어도 되는 이유로는 본인의 일에 대한 전념, 양육에 따른 비용 부담,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 등을 지적
- 응답 청소년의 절반 정도(56.9%)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자녀수를 2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3명, 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명 이하로 응답한 비율이 4.3%에 불과하여, 대개는 2명 이상을 적정자녀수로 인지하고 있음
-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은 가치 있는 것으로 인지
 - 노년기에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부양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인지하는 비율은 80%수준인 반면, 경제적 부양에 대한 기대는 68%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
 - 자녀를 갖는 것이 사회에 대한 의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51%정도로 나타남.
 - 육아를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잘할 것이라 인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35% 정도) 나타나고 있음.

- 저출산현상 및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가끔 또는 자주 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높게 나타남.
- 저출산현상 및 그 문제에 대해 접한 매체는 TV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과서, 인터넷, 선생님 등으로 나타남.
- 저출산현상이 본인과 연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0%정도이며, 이러한 비율은 저학년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남.
-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 만혼 또는 저출산 현상을 경험(토론 등)을 한 비율은 40%수준으로 나타남.
- 교과서를 통해 저출산현상 및 그 문제점에 대하여 학습한 비율은 85%로 나타남.
- 응답 학생의 상당수(86%정도)는 학교에서의 인구교육(결혼, 출산, 자녀양육 관련)이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13%) 그 이유로는 학교에서의 학습을 통해서만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2. 시사점

- 응답 청소년들의 경우 양성평등문화, 실속형 결혼문화 조성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경향이 높아 미래에 결혼, 가족 관련 문화에 점진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
- 그러나 결혼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경향이 여학생 그리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청소년 사이에 결혼을 '의무'가 아닌 '선택'의 개념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확산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으며,
 - 또한 청소년세대도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결혼생활과 학업 또는 일에서의 성취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가정 양립 관련 가족 그리고 사회 문화가 변화하지 않을 경우 만혼화 현상이 더욱 고착화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출산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인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일-가정양립 곤란, 양육비 부담 증가 등이 지속될 경우 미래 세대의 출산도 축소 될 수 있음을 시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는 적정 자녀수로 2명 이상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
- 전통적 성역할 분업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이 강하나, 남성의 가사참여가 현재보다 증가해야 하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찬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청소년들 사이에도 여전히 가사는 여성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기 때문으로 풀이
- 응답 청소년들의 상당수는 대중매체를 통해 만혼이나 저출산 현상에 대하여 접하고 있는데, 향후 대중매체(TV, 인터넷 등)가 사람들의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
- 청소년들이 쉽게 노출되는 오락 프로그램, 드라마 등에서 결혼이

나 출산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지는 않는지 등 모니터링이 필요

- 학교에서의 결혼, 출산, 자녀양육 관련 교육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어, 향후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음.
- 교육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는 학교에서의 학습만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향후 학교교육에 더해 체험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제 3 장

저출산·고령화 대응 관련 국민 욕구 모니터링

- 제1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미래 사회 위험에 대한 인식
- 제2절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책에 대한 인식
- 제3절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인식
- 제4절 결혼 및 출산 관련 태도

3

저출산·고령화 대응 관련 << 국민 욕구 모니터링

제1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미래 사회 위험에 대한 인식

-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위험 중 가장 위험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보장 부담 증가”가 44.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일자리 감소, 내수시장 위축 등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37.9%)”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일자리 감소, 내수시장 위축 등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군 병력자원 감소로 인한 국방력 약화”, “세대간, 내·외국인간 사회갈등 증가” 등을 위험으로 인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연령대에 따라서는 고연령으로 갈수록 “군 병력자원 감소로 인한 국방력 약화”, “세대간, 내·외국인간 사회갈등 증가”를 가장 큰 위험으로 인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20대 연령층을 제외하면 저연령층으로 갈수록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보장 부담 증가”를 가장 큰 위험으로 인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혼인상태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음.

46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표 3-1〉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위험 중 가장 위험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일자리 감소, 내수시장 위축 등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국민 연금, 건강보험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보장 부담 증가	군 병력자원 감소로 인한 국방력 약화	세대간, 내·외국인간 사회갈등 증가	계	사례수
전체	37.9	44.3	8.4	9.4	100.0	(998)
성별($\chi^2=18.2^{***}$)						
남성	39.7	38.5	10.9	10.9	100.0	(506)
여성	36.0	50.2	5.9	7.9	100.0	(492)
연령대($\chi^2=45.1^{***}$)						
20대	40.3	45.9	4.6	9.2	100.0	(196)
30대	37.0	52.6	4.3	6.2	100.0	(211)
40대	38.0	45.9	7.0	9.1	100.0	(242)
50대	40.5	38.7	11.3	9.5	100.0	(222)
60대	30.7	34.6	18.9	15.7	100.0	(127)
혼인상태($\chi^2=7.4$)						
미혼	41.5	45.3	4.7	8.5	100.0	(258)
기혼	36.6	43.9	9.7	9.7	100.0	(740)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화 대응 관련 국민 욕구 조사」 분석 결과

-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발생할 위험이 누구의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80.6%가 “나와 가족과 국가 모두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15.1%는 국가만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나와 가족과 국가 모두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연령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나와 가족과 국가 모두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미혼자에 비해 기혼자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국가만의 문제”, “가족만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미혼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2〉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발생할 위험이 누구의 문제인가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국가만의 문제이다	나만의 문제이다	자녀 혹은 노부모 등 가족만의 문제이다	나와 가족과 국가 모두의 문제이다	계	사례수
전체	15.1	1.5	2.8	80.6	100.0	998
성별($\chi^2=27.2^{***}$)						
남성	19.7	2.6	3.2	74.6	100.0	507
여성	10.4	0.4	2.4	86.8	100.0	491
연령대($\chi^2=18.4$)						
20대	18.8	1.5	4.6	75.1	100.0	197
30대	18.1	1.0	1.9	79.0	100.0	210
40대	10.7	0.8	2.1	86.4	100.0	242
50대	14.4	1.4	2.3	82.0	100.0	222
60대	14.2	3.9	3.9	78.0	100.0	127
혼인상태($\chi^2=13.0^{**}$)						
미혼	20.5	1.2	4.6	73.7	100.0	259
기혼	13.3	1.6	2.2	82.9	100.0	739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화 대응 관련 국민 욕구 조사」 분석 결과

제2절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책에 대한 인식

-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38.5%가 “예산 등의 한계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35.6%는 “일

부 영역만 노력하고 있어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는데 역부족”, 23.5%는 “노력은 있으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비율은 2.5%에 불과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아, 남성과 여성이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부 노력을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연령대에 따라서는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정부 노력에 대해 효과가 있거나, 노력은 있으나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대체적으로 저연령층으로 갈수록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에 한계가 있거나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기혼자에 비해 미혼자의 경우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에 한계가 있다고 인지하거나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3-3〉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함	노력은 있으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일부 영역만 노력하고 있어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는데 역부족	예산 등의 한계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함	계	사례수
전체	2.5	23.5	35.6	38.5	100.0	976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함	노력은 있으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일부 영역만 노력하고 있어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는데 역부족	예산 등의 한계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함	계	사례수
성별($\chi^2=2.3$)						
남성	1.8	24.4	34.6	39.1	100.0	491
여성	3.1	22.5	36.5	37.9	100.0	485
연령대($\chi^2=115.8^{***}$)						
20대	1.0	13.0	50.3	35.8	100.0	193
30대	1.0	14.1	33.7	51.2	100.0	205
40대	0.0	21.1	40.1	38.8	100.0	237
50대	3.7	37.8	25.8	32.7	100.0	217
60대	9.7	34.7	24.2	31.5	100.0	124
혼인상태($\chi^2=28.4^{***}$)						
미혼	1.2	13.1	46.0	39.7	100.0	252
기혼	2.9	27.1	31.9	38.1	100.0	724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화 대응 관련 국민 욕구 조사」 분석 결과

□ 저출산 대응 정책 중 잘 수행된 것으로 생각하는 정책은 보육, 아이 돌보미 등 자녀돌봄 지원(37.3%)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육아 휴직, 유연 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 지원(25.6%), 난임부부 지원 등 임신·출산 지원(24.1%), 주거, 일자리 등 청년세대 결혼기반 마련(1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아, 성별에 관계 없이 유사하게 인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연령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20대에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임신·출산지원, 주거 및 일자리 등 결혼기반 마련 사업이 잘 수행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30대의 경우에는 임신·출산지원, 자녀돌봄 사업이 잘 수행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40대에서는 자녀돌봄 사업이 잘 수행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50~60대에서 주거, 일자리 등 청년세대 결혼기반 마련 사업을 잘 수행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은 것은 자녀 세대가 정책의 수혜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으로 풀이

○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기혼자의 경우 미혼자에 비해 ‘보육, 아이 돌보미 등 자녀돌봄 지원 사업이 잘 수행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4〉 저출산 대응 정책 중 잘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

(단위: %, 명)

	주거, 일자리 등 청년세대 결혼기반 마련	난임부부 지원 등 임신·출산 지원	보육, 아이 돌보미 등 자녀돌봄 지원	육아 휴직, 유연 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 지원	계	사례수
전체	13.0	24.1	37.3	25.6	100.0	1,000
성별($x^2=6.1$)						
남성	14.1	23.9	33.7	28.4	100.0	419
여성	12.0	24.3	40.7	22.9	100.0	432
연령대($x^2=43.5^{***}$)						
20대	18.0	29.7	27.3	25.0	100.0	172
30대	4.7	34.9	35.5	24.9	100.0	169
40대	12.2	20.0	45.9	22.0	100.0	205
50대	15.2	15.7	38.2	30.9	100.0	191
60대	15.8	21.1	37.7	25.4	100.0	114
혼인상태($x^2=17.1^{**}$)						
미혼	17.4	30.1	26.9	25.6	100.0	219
기혼	11.6	22.0	40.8	25.6	100.0	632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화 대응 관련 국민 욕구 조사」 분석 결과

- 고령화 대응 정책 중 잘 수행된 것으로 생각하는 정책은 장기요양 등급 확대 등 건강한 노년기 삶을 위한 건강보장(31.8%)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기초연금 도입 등 노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소득보장(31.6%), 고령자 고용 지원(25.1%),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한 여가 지원(1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아, 성별에 관계 없이 유사하게 인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연령대에 따라서는 대체적으로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장기요양 등급 확대 등 건강한 노년기 삶을 위한 건강보장’ 정책이 잘 수행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기혼자의 경우에는 건강보장이나 소득보장 정책을 잘 수행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미혼자의 경우에는 고용지원이나 노후 여가지원 사업이 잘 수행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5〉 고령화 대응 정책 중 잘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

(단위: %, 명)

	기초연금 도입 등 노후 안정적 생활을 위한 소득보장	고령자 고용 지원	장기요양 등급 확대 등 건강한 노년기 삶을 위한 건강보장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한 여가 지원	계	사례수
전체	31.6	25.1	31.8	11.4	100.0	883
성별($\chi^2=6.2$)						
남성	33.4	27.3	28.2	11.1	100.0	440
여성	29.8	23.0	35.4	11.7	100.0	443

52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기초연금 도입 등 노후 안정적 생활을 위한 소득보장	고령자 고용 지원	장기요양 등급 확대 등 건강한 노년기 삶을 위한 건강보장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한 여가 지원	계	사례수
연령대($\chi^2=35.8^{***}$)						
20대	22.0	30.5	27.7	19.8	100.0	177
30대	31.3	30.2	29.6	8.9	100.0	179
40대	39.3	21.3	32.2	7.1	100.0	211
50대	28.8	23.7	36.4	11.1	100.0	198
60대	37.3	18.6	33.1	11.0	100.0	118
혼인상태($\chi^2=15.3^{**}$)						
미혼	26.2	30.1	27.1	16.6	100.0	229
기혼	33.5	23.4	33.5	9.6	100.0	654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화 대응 관련 국민 욕구 조사」 분석 결과

□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 중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으로는 ‘지원 수준 등이 현실과는 맞지 않았다’가 30.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정책의 가지 수는 많지만 진작 나에게 해당되는 정책은 없었다 (25.2%)’,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가 부족하여 실제 이용이 어렵다 (24.0%)’, ‘홍보가 부족하여 정책에 대하여 잘 알 수 없었다 (19.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아, 특성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서 유사하게 인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6〉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 중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정책의 가치 수는 많지만 진작 나에게 해당되는 정책은 없었다	지원 수준 등이 현실과는 맞지 않았다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가 부족하여 실제 이용이 어렵다	홍보가 부족하여 정책에 대하여 잘 알 수 없었다	계	사례수
전체	25.2	30.9	24.0	19.9	100.0	988
성별($x^2=5.9$)						
남성	22.5	33.6	24.7	19.3	100.0	503
여성	28.0	28.0	23.3	20.6	100.0	485
연령대($x^2=19.5$)						
20대	22.2	25.8	27.8	24.2	100.0	198
30대	24.0	40.4	20.2	15.4	100.0	208
40대	27.5	28.0	22.5	22.0	100.0	236
50대	26.8	31.4	22.7	19.1	100.0	220
60대	24.6	27.8	29.4	18.3	100.0	126
혼인상태($x^2=4.7$)						
미혼	23.3	27.2	28.0	21.4	100.0	257
기혼	25.9	32.1	22.6	19.4	100.0	73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화 대응 관련 국민 욕구 조사」 분석 결과

제3절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인식

□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가에 대해서는 전체의 40.7%가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아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8.6%는 ‘쉽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5.0%는 ‘출산율은 어렵지만 고령 사회는 어느 정도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응답

○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아, 특성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서 유사하게 인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음.

5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표 3-7〉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극복 가능성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쉽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출산율은 어렵지만 고령 사회는 어느 정도 대응할 것으로 기대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아 고령 사회에 대응할 수 없을 것	계	사례수
전체	5.7	28.6	25.0	40.7	100.0	1,000
성별($\chi^2=4.2$)						
남성	6.9	29.7	23.4	40.0	100.0	508
여성	4.5	27.4	26.6	41.5	100.0	492
연령대($\chi^2=20.6$)						
20대	5.6	35.4	26.3	32.8	100.0	198
30대	2.8	24.2	27.5	45.5	100.0	211
40대	5.8	23.6	26.4	44.2	100.0	242
50대	7.2	30.6	23.4	38.7	100.0	222
60대	7.9	31.5	18.9	41.7	100.0	127
혼인상태($\chi^2=2.4$)						
미혼	4.6	31.9	24.6	38.8	100.0	260
기혼	6.1	27.4	25.1	41.4	100.0	740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화 대응 관련 국민 욕구 조사」 분석 결과

-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누구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전체의 66.2%는 정부, 기업, 국민 모두의 균형 있는 참여라고 응답하였으며, 17.8%는 정부의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
-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정부, 기업, 국민 모두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에 따라서는 40대에서 정부, 기업, 국민 모두의 참여가 그리고 30대에서는 정부의 정책 강화가 그리고 20대에서는 기업의 적극적 협조가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음.

○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표 3-8〉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노력이 필요한 주체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정부의 정책 강화	기업의 적극적 협조	국민의 능동적 참여	정부, 기업, 국민 모두의 균형 있는 참여	계	사례수
전체	17.8	4.9	11.0	66.2	100.0	998
성별($\chi^2=19.3^{***}$)						
남성	21.3	5.7	13.2	59.8	100.0	507
여성	14.3	4.1	8.8	72.9	100.0	491
연령대($\chi^2=26.2^1$)						
20대	18.7	8.1	11.1	62.1	100.0	198
30대	21.3	3.3	9.0	66.4	100.0	211
40대	19.1	4.6	7.5	68.9	100.0	241
50대	17.6	2.7	13.1	66.7	100.0	222
60대	8.7	7.1	17.5	66.7	100.0	126
혼인상태($\chi^2=7.3$)						
미혼	19.6	7.7	11.2	61.5	100.0	260
기혼	17.2	3.9	11.0	67.9	100.0	738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화 대응 관련 국민 욕구 조사」 분석 결과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부문에서의 노력이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전체의 35.7%는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재정부문이 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부문(25.9%)’, ‘가족 친화적 고용문화 조성, 일가정 양립 지원 등 고용부문(20.8%)’, ‘보육, 아이 돌보미 서비스 지원 등 돌봄부문 (1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에 따라서는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 교육부문에서의 노력이 그리고 저연령층으로 갈수록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재정부문에서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응답
-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미혼자의 경우 일가정양립 등 고용부문과 양육비 경감 등 재정부문에서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기혼자는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 부문에서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응답

〈표 3-9〉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위해 가장 노력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부문	가족 친화적 고용문화 조성, 일가정 양립 지원 등 고용부문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재정부문	보육, 아이 돌보미 서비스 지원 등 돌봄부문	계	사례수
전체	25.9	20.8	35.7	17.6	100.0	998
성별($\chi^2=1.5$)						
남성	27.0	21.5	35.0	16.5	100.0	508
여성	24.7	20.2	36.3	18.8	100.0	490
연령대($\chi^2=40.2^{***}$)						
20대	17.2	22.2	46.0	14.6	100.0	198
30대	19.0	22.9	36.2	21.9	100.0	210
40대	28.9	19.0	38.4	13.6	100.0	242
50대	33.9	21.3	28.1	16.7	100.0	221
60대	30.7	18.1	26.8	24.4	100.0	127
혼인상태($\chi^2=20.6^{***}$)						
미혼	15.8	24.2	42.7	17.3	100.0	260
기혼	29.4	19.6	33.2	17.8	100.0	738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화 대응 관련 국민 욕구 조사」 분석 결과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1순위)으로는 ‘출산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40.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청년층이 결혼을 늦추거나 하지 못하는 원인 해소(28.9%)’, ‘어린이집 등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및 질적 수준 향상(11.3%)’, ‘일·가정 균형이 가능한 환경 및 문화 조성(1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이나 혼인상태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에 따라서는 50~60대에서는 만혼의 원인 해소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 30~40대에서는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일가정양립 문화 조성 등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음.

〈표 3-10〉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1순위)

(단위: %, 명)

	청년층이 결혼을 늦추거나 하지 못하는 원인 해소	출산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어린이집 등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및 질적 수준 향상	일·가정 균형이 가능한 환경 및 문화 조성	다자녀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	동거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 대한 지원	계	사례수
전체	28.9	40.6	11.3	10.9	6.9	1.4	100.0	1,000
성별($\chi^2=5.0$)								
남성	28.7	39.6	12.6	10.0	7.1	2.0	100.0	508
여성	29.1	41.7	10.0	11.8	6.7	0.8	100.0	492
연령대($\chi^2=45.6^{**}$)								
20대	27.8	41.9	11.1	10.6	6.1	2.5	100.0	198
30대	23.2	47.9	7.6	14.7	6.2	0.5	100.0	211
40대	25.2	47.5	11.6	10.7	3.7	1.2	100.0	242
50대	34.2	32.9	13.5	8.6	9.9	0.9	100.0	222
60대	37.8	26.8	13.4	9.4	10.2	2.4	100.0	127

	청년층이 결혼을 늦추거나 하지 못하는 원인 해소	출산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어린이집 등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및 질적 수준 향상	일·가정 균형이 가능한 환경 및 문화 조성	다자녀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	동거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 대한 지원	계	사례수
혼인상태($\chi^2=5.3$)								
미혼	29.2	41.5	8.8	12.3	5.8	2.3	100.0	260
기혼	28.8	40.3	12.2	10.4	7.3	1.1	100.0	740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화 대응 관련 국민 욕구 조사」 분석 결과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2순위)으로는 ‘일·가정 균형이 가능한 환경 및 문화 조성’이 30.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어린이집 등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및 질적 수준 향상(18.9%)’, ‘다자녀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18.0%)’, ‘출산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1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이나 혼인상태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에 따라서는 30~40대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1〉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2순위)

(단위: %, 명)

	청년층이 결혼을 늦추거나 하지 못하는 원인 해소	출산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어린이집 등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및 질적 수준 향상	일·가정 균형이 가능한 환경 및 문화 조성	다자녀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	동거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 대한 지원	계	사례수
전체	5.8	17.8	18.9	30.1	18.0	9.2	100.0	942

	청년층이 결혼을 늦추거나 하지 못하는 원인 해소	출산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어린이집 등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및 질적 수준 향상	일·가정 균형이 가능한 환경 및 문화 조성	다자녀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	동거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 대한 지원	계	사례수
성별($\chi^2=5.3$)								
남성	5.5	19.1	20.0	27.3	19.3	8.8	100.0	476
여성	6.2	16.5	17.8	33.0	16.7	9.7	100.0	466
연령대($\chi^2=39.8^*$)								
20대	7.5	19.4	15.1	34.9	16.7	6.5	100.0	186
30대	5.0	13.9	25.9	28.4	16.9	10.0	100.0	201
40대	3.1	15.7	20.5	32.8	19.7	8.3	100.0	229
50대	5.2	17.1	15.2	30.8	19.9	11.8	100.0	211
60대	11.3	27.8	16.5	19.1	15.7	9.6	100.0	115
혼인상태($\chi^2=9.5$)								
미혼	7.4	19.4	16.9	33.9	16.9	5.4	100.0	242
기혼	5.3	17.3	19.6	28.9	18.4	10.6	100.0	700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화 대응 관련 국민 욕구 조사」 분석 결과

□ 고령자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1순위)으로는 ‘소득보장정책’이 38.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고령자 고용정책(28.4%)’, ‘의료비 경감 정책(22.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이나 혼인상태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에 따라서는 50대에서는 소득보장이나 의료비 경감에 대해 그리고 60대에서는 노인권익 증진 정책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응답한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12〉 고령자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1순위)

(단위: %, 명)

	소득보장 정책	의료비 경감 정책	고령자 고용 정책	고령 친화적 환경조성 정책	여가활동 지원정책	노인권익 증진 정책	계	사례수
전체	38.2	22.6	28.4	5.3	1.8	3.7	100.0	1,000
성별($\chi^2=4.4$)								
남성	37.0	24.6	27.2	6.1	1.6	3.5	100.0	508
여성	39.4	20.5	29.7	4.5	2.0	3.9	100.0	492
연령대($\chi^2=46.8^{**}$)								
20대	39.4	18.7	26.8	8.6	3.5	3.0	100.0	198
30대	38.9	19.9	33.2	4.7	0.9	2.4	100.0	211
40대	35.5	25.6	28.9	5.0	1.7	3.3	100.0	242
50대	41.4	26.1	26.1	3.2	1.8	1.4	100.0	222
60대	34.6	21.3	26.0	5.5	0.8	11.8	100.0	127
혼인상태($\chi^2=10.3$)								
미혼	40.0	16.9	30.8	6.9	2.7	2.7	100.0	260
기혼	37.6	24.6	27.6	4.7	1.5	4.1	100.0	740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화 대응 관련 국민 욕구 조사」 분석 결과

□ 고령자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2순위)으로는 ‘고령자 고용정책’이 26.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노인권익증진 정책(22.5%)’, ‘의료비 경감 정책(17.5%)’, ‘여가활동지원정책 (15.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이나 혼인상태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에 따라서는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고령자고용정책이 중요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3-13〉 고령자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2순위)

(단위: %, 명)

	소득보장 정책	의료비 경감 정책	고령자 고용 정책	고령 친화적 환경조성 정책	여가활동 지원정책	노인권익 증진 정책	계	사례수
전체	5.7	17.5	26.9	12.0	15.4	22.5	100.0	952
성별($\chi^2=0.5$)								
남성	5.8	17.0	26.7	12.0	16.1	22.4	100.0	483
여성	5.5	18.1	27.1	11.9	14.7	22.6	100.0	469
연령대($\chi^2=34.0$)								
20대	3.2	21.3	24.5	7.4	13.8	29.8	100.0	188
30대	7.5	15.1	24.6	15.6	15.1	22.1	100.0	199
40대	4.8	18.6	26.4	10.4	21.6	18.2	100.0	231
50대	6.0	15.8	27.4	15.3	12.6	22.8	100.0	215
60대	7.6	16.8	34.5	10.1	11.8	19.3	100.0	119
혼인상태($\chi^2=8.7$)								
미혼	5.4	19.0	24.4	7.9	18.6	24.8	100.0	242
기혼	5.8	17.0	27.7	13.4	14.4	21.7	100.0	710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화 대응 관련 국민 욕구 조사」 분석 결과

제4절 결혼 및 출산 관련 태도

□ 미혼층에게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한 결과 전체의 35.9%는 ‘자기 발전 등을 위하여’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24.9%)’, ‘집 장만이 어려워(14.8%)’, ‘고용이 불안정해서(1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경우 고용 불안정이나 주택마련 곤란으로 결혼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생활-일의 동시 수행 곤란, 자기발전을 위해 결혼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14〉 미혼층의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주된 이유

(단위: %, 명)

	고용이 불안정 해서	집 장만이 어려워서	결혼 생활과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어서	자기 발전 등을 위하여	기타	계	사례수
미혼	12.7	14.8	11.8	35.9	24.9	100.0	237
성별($\chi^2=13.0^*$)							
남성	16.1	19.0	7.3	33.6	24.1	100.0	137
여성	8.0	9.0	18.0	39.0	26.0	100.0	100
연령대($\chi^2=9.2$)							
20대	12.5	12.5	10.8	34.7	29.5	100.0	176
30대	13.1	21.3	14.8	39.3	11.5	100.0	6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화 대응 관련 국민 욕구 조사」 분석 결과

- 기혼자를 대상으로 추가출산중단 이유를 질문한 결과 ‘자녀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가 48.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일과 가정 생활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워서(1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자녀를 둔 경우에는 일-가정양립곤란(26.7%), 고용불안정(20.0%), 불임(2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자녀를 둔 경우에는 양육비 부담(49.7%), 일-가정양립곤란(15.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3자녀 이상의 경우에도 2자녀를 둔 경우와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남.

〈표 3-15〉 기혼층의 현 자녀수별 추가출산 중단 이유

(단위: %, 명)

	전체	무자녀	1자녀	2자녀	3자녀 이상
추가출산 중단 이유					
고용이 불안정 해서	6.0	20.0	9.0	4.7	3.6
일과 가정 생활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워서	17.2	26.7	20.9	15.5	14.5
자녀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48.8	13.3	41.8	49.7	65.5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	3.9	0.0	6.0	4.7	0.0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5.1	20.0	4.5	3.6	5.5
기타	19.0	20.0	17.9	21.8	1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32	15	67	193	55

주: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이상인 관계로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화 대응 관련 국민 욕구 조사」 분석 결과

제 4 장

저출산대책 전달체계 상 장애요인 모니터링

제1절 지자체 저출산대책 추진 상 장애요인

제2절 민간단체의 저출산 대응 활동 관련 장애요인

4

저출산대책 전달체계 상 << 장애요인 모니터링

제1절 지자체 저출산대책 추진 상 장애요인

1. 군지역 저출산대책 담당부서

□ 지자체 조직의 충분성과 업무 부담 관련

- 저희 계에는 출산 업무 담당자가 2명 있어요. 다행히 난임부부사업이랑 미숙아사업을 다른 계에서 하고 있으나 인력 증원없이 정책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여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요. 민원은 출산장려금이 시군마다 지원이 다르니깐 저기는 주는데 우리는 왜 안주냐 우리는 왜 적냐 하는 등 민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금방 비교를 하잖아요. 우리 자치실정을 얘기해줘도 민원은 계속 들어와요. 기존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그대로 다 받으려고 하면서, 타 지역의 서비스랑 비교하여 더 받으려 해요. 이런 정책들을 정부시책으로 실시하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 저희 계는 주로 모자보건사업이랑 출산장려금하고요 보육이나 일가정양립 관련 정책은 여성보육과나 다른 과에서 수행하고 있어요. 별도로 총괄 조직은 없고, 저희(계)가 출산관련 업무를 취합하고 있어요.

□ 저출산대책 기획 관련

- 저출산대책 관련해서 연간 사업 계획을 별도로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보건소 차원에서 어차피 연간 사업계획을 세우니깐 그때 일부분으로 저출산 관련 업무가 들어가는 거죠.
- 보건소가 힘이 크지 않은데 전체적인 것을 기획하고 총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걸 저출산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인구”로 해서 끌고 가거나 또는 행자부에서 끌고 가거나 해야 할 것 같아요. 인구정책은 힘 있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치단체에서는 아무래도 행자부가 힘이 있으니깐 안행과에서 추진하면 힘을 받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치단체장의 인식도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거랑 안행과에서 추진하는 거랑 다르니까요.

□ 지역사회 자원 활용 관련

- 우리 군에서 단체, 학교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별로 없어요, 보건소에서 거의 혼자서 하고 있어요. 군 단위는 서울 등 지역과 달라 단체들이 기획력이나 추진력 등이 부족해요. 같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알려줘야 할 것도 많고 해서, 저희가 직접 수행해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는 처음에 한번 정도 행사하고 거의 끝났어요. 출범만 한 거죠.
-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상도 받고 하려면 활동을 많이 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요. 지금 기존 업무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하루 종일 있으면 민원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 정책관련 건의 사항

- 지금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책들보다 교육, 홍보, 인식개선 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저출산극복 릴레이 캠페인을 위하여 홍보비를 지원해주고 있기는 한데. 여러 시군에서 똑같은 라디오, 똑같은 TV에 돈을 주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광고는 금연 광고처럼 중앙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니깐 하나에 돈이 여러 번 중복되는 거잖아요.
- 중앙에서 정책을 만들고 내려오면, 시행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기저귀 지원 사업의 경우 '나들가게'를 이용해야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나들가게가 없어요. 여기 사람들은 나들가게를 이용하지 못하니깐 우체국만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체국쇼핑몰은 기저귀가 더 비싸대요. 또한 우체국도 업무가 과중해지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시군에 나들가게가 없어요. 행복카드랑 연계도 안 되고 있어요.

2. 시지역 저출산대책 담당부서

□ 지자체 조직의 충분성과 업무 부담 관련

- 출산장려금과 같이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한 번 시작을 하면 계속 연속적으로 수행해야 해서 부담이 큼니다. (지자체)의원들은 표 생각하면서 돈 주라고 하는데, 조례도 만들어야 하고, 예산도 생각하면 어려운 점이 많지요. 주민들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 반짝하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새로운 것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출산장려 개념에서 어느 지역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많이 해

서 지원을 더 준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쪽으로 옮겨가요. 그런데 이런 것은 국가 차원에서 보면 그냥 똑같은 거거든요. 물론 민선 시대라서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기는 한데, 한번 시작하면 끊지를 못해요. 우리 지역이 출산장려금을 다른 곳보다 조금 더 주기는 하는데, 이게 출산 장려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에요.

- 저희는 지금 건강출산계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저출산대책계로 분리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조직진단을 해서 출산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건강증진업무 자체도 많으니까요. 이제 계가 분리되면 더 개선될 것으로 생각해요.

□ 타 부서(업무)와의 협력관련

- 출산율을 높이는 것과 인구를 늘리는 것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인구 늘리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어요.
- 우리 시에서 공약사업으로 '아이낳기 좋은도시' 만들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파트보다 저출산에 관심이 많기는 하죠. 지금까지는 출산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늘리기도 하고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요즘 산업이랑 연계하고 있어요. 국가 산업단지가 아니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젊은 사람들이 소득이 생겨 출산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 혁신도시가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될 것입니다.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죠. 그래도 젊은이 와서 잘 살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 지역사회 자원 활용 관련

- (우리 시에는) 보건계열 대학이 두 군데 있어요. 그래서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들을 활용해서 교육하고 그런 것들을 주로 하죠. 저희는 별도로 정책자문위원단이 있어요. 그래서 정책을 만들려면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단체 등을 활용하려면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자원봉사 식으로 하니까 시에서는 실비 밖에 지원할 수 없어요. 1만원이라든지, 식사가 포함하면 2만원 정도 밖에 지원을 못해줘요, 그래도 좀 지원을 해줘야 미리 기획도 하고 할 텐데, 지금은 그냥 참석만 하는 거죠.

□ 정책관련 건의 사항

- 정책을 조건 없이 주게 되면 사람들이 그 것을 당연한 권리로 알게 돼요. 지금 예산은 고정되어 있고 재정자립도도 20%정도 되는데, 이렇게 모두에게 주는 사업들을 계속하면 필요한 사업을 못하게 돼요.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할 수 있게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줘야 하는 거죠. 노인일자리 사업의 예를 들어보면, 1~2시간씩 한 달에 10번 정도 약 20만원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줘야죠. 요즘에 육아에 대한 여론이 안 좋기도 한데, 집에서 본인이 키울 수 있는데도 안 보내면 돈을 못 받으니 그냥 보내잖아요. 정책은 조건을 부여해도 사람들은 그 조건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풀어 놔버리면 누구나 다 받으려 하는 거죠. 이런 것보다는 셋째아 이상을 진짜 대폭적으로 지원하던가, 대학교 등록금을 다 주던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 그리고 중앙에서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같아요. 요즘 금연 광고보세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이해를 하잖아요. 지방에서 홍보를 하면 돈만 쓰고 효과는 별로 없어요. 중앙에서 이런 것을 강화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죠.

제2절 민간단체의 저출산 대응 활동 관련 장애요인

□ 시민사회·민간단체 등의 역할 관련

-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에서도 2006년 이후 2차에 걸쳐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이제 3차 5개년 계획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보다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회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이다.
-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그 대상이 되는 우리 국민의 인식개선과 행동변화이다. 이러한 변화가 없이는 정부나 사회에서 제공되는 어떤 서비스와 사업도 제대로 기여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에서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성과를 갖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은 당연하다. 그래서 최근 경제계, 종교계에 이어 시민단체에서도 저출산대책에 대한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지향하는 실천 선언문을 발표하여 앞으로 이러한 정부정책과 사회변화에 적극 참여하기로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 이러한 시민단체의 참여가 갖는 의미는 인식변화와 행동변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감안한다면 대단히 중요하다. 시민단체의 기능이란 인간을 위한 새로운 사회가치와 변화의 모색과 전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운동에서 시민단체는 우리사회의 저출산에 대한 인식전환과 행동변화를 추구하는 기능을 최우선으로 담당하고 있는 셈이어서, 이들의 참여가 없이 사회변화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본다. 사회변화, 인식개선, 행동변화를 추구하는 그 어떤 활동도 시민단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시민단체의 참여를 다짐하는 선언이 발표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 이런 시민단체의 역할은 발표된 선언문에 나타나 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 낳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문화와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첫째, ‘민간협의체’ 구성을 통해 단체들 간의 협업과 연계를 기반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 둘째, 가족친화적인 사회여건 조성(임산,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셋째, 민간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저출산 극복의 중요성을 지역시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이며 추진방향으로는
 - 첫째 협력적 민간협업체 운영, 둘째 가족친화적인 사회여건 조성
과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배려, 셋째 민간 주도적 캠페인이라고 하겠다.
- 말하자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과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운동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가 없이는 우리가 지향하는 저출산 극복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출발점인 셈이다. 인식개선과 행동변화로 이어지는 사회운동이 이번에 민간 단체들이 추구하려는 것이라고 하겠다.

□ 홍보 및 교육 활동 관련

- 사회운동이란 사회변화를 추구하지만 사회구성원의 인식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홍보, 교육이 그러한 사회운동을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인구와 출산에 관한 최초의 우리사회의 성공적인 사회변화이었던 가족계획운동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 그 성공의 핵심은 필요한 서비스 제공과 확장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대대적인 홍보, 교육사업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겠다. 사회구성원의 인식개선과 행동변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홍보 교육을 통해 사회운동이 이루어졌었다. 그때의 경험을 되돌아본다면 지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운동에서는 이러한 홍보 교육이 매우 취약하다고 하겠다.

- 이러한 홍보 교육을 시민단체의 기능으로 보고 과거의 경험에서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다.
- 첫째, 홍보교육과 서비스(사업) 전략이 중장단기 목표에 따라 설정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 및 민간단체의 구체적 사업이 구성되고 추진되었다.
 - 둘째, 홍보 교육을 통한 사회운동은 범국민적인 참여가 불가피하므로 이를 위해 국민을 위한 종합적인 홍보 교육을 위한 전담기구가 구성, 운영되었을 뿐 아니라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전문단체들이 운영되었다. 이 전담기구는 홍보 교육에 관한 전략개발은 물론 실질적인 홍보교육활동을 추진하는 홍보 교육 실무기구이기도 하였다.
 - 셋째, 홍보 교육의 우선순위를 인정하여 우선적인 재정지원도 이루어졌다. 1984년 우리나라의 인구가 4천만을 넘을 때 추진되었던 그 많은 홍보교육 사업을 위한 비용을 그 당시의 국민소득과 비교해서 본다면 지금의 홍보교육에는 예산지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또한 이러한 재정지원으로 추진되는 홍보교육은 국가의 사회운동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어서 참여하는 정부와 민간의 모든 관련기관단체의 자체적인 홍보교육사업에도 연계되어 추진되었는데 이런 자체적인 예산은 계산된 적도 없다. 다시 말하면 워낙 대대적인 인구 홍보교육이 추진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러한 배려가 이루어진 셈이었다. 비예산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의 규모도 대단하였다. 특히 당시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던 새마을 운동도 이러한 홍보교육을 적극 추진하였고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에서도 인구에 대한 교육이 모두 이루어진 것은 당연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

- 물론 이러한 홍보교육에 필요한 자료와 내용 즉, 요즘말로는 R&D도 관련기관들의 지속적인 상호교류 속에서 계속 추진되었다. 당시 인구사업에 관한 우리의 축적된 경험과 자료를 보고 평가한 베트남 고위층의 의견은 충격적이기도 하였다.
-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국가발전계획을 위해 인구사업에 관한 교훈을 얻고자 7개 국가를 방문하였는데 얻은 게 별로 없었지만 마지막 방문국인 한국에 와서 보니 이곳이야말로 인구사업에 관한 많은 경험과 연구와 자료의 백화점과 같다. 한글로 된 모든 자료조차도 가져가고 싶다”
- 이렇게 축적된 자료와 연구내용들이 홍보교육의 전국적인 추진에 기여했다는 것은 그 질과 내용도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만큼 대단한 것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 선언식에 참여했던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박동은 회장의 3차 계획 중 홍보사업에 대한 의견은 저출산 극복을 새롭게 출발하는 입장에서 매우 의미 있었다. 3차 기본계획의 총예산이 향후 5년간 200개 대책에 200조원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아주 중요한 의견이었다. 즉, 이 계획에서 차지하는 홍보교육예산이 얼마냐는 질문과 보건복지부의 내년 홍보교육 예산이 40억 원이라는 대답이 전하는 양측의 입장은 너무나도 다른 내용이었다. 박동은 회장은 당시에 가족계획협회의 홍보부장으로서 우리나라의 가족계획 홍보사업 전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였는데 대략적으로 당시 총예산의 반 정도가 홍보교육에 배정되었다는 의견은 참으로 충격적이었다. 과연 우리는 지금 홍보교육을 하고 있기는 한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 민간단체의 기능은 인식개선과 행동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운동이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단체의 주된 활동은 국민 모두에 대한 홍보교육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의 홍보교육사업과 활동이 활성화 되는 것은 그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야만 한다. 인식 변화와 행동변화가 없이 사회변화는 이루어질 수 없지 않겠는가. 우리 민간단체들의 이러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교육 활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 또한 이런 홍보교육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범국민적 사회운동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가 전체의 홍보교육을 전담하는 조직이 필수적임은 과거의 경험에서 쉽게 얻어지는 교훈이다. 물론 현재 요구되는 홍보교육 전략이 과거와 동일할 수는 없다. 시대적 변화, life style 변화에 따른 보다 더 섬세한 전략이 필요하다. 출산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것은 가족, 아이, 삶의 가치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더 많은 연구와 복잡한 대중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 이런 맥락에서 각 부처가 자체적인 다양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교육만큼은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에 따라 시민단체의 주도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이고 최우선적인 선택이 틀림없다고 하겠다. 그동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틀 안에서 인식개선 측면이 과소평가되어 온 점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이 역할을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회적·시스템적 지지가 필요하다. 인식개선

영역에 대한 과감한 예산투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저출산 극복의 중요성과 출산결정의 문제가 내 자신과 미래세대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인식변화가 없이 사회 변화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제 5 장 결론

- 다른 모든 정책과 마찬가지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도 수립-집행-모니터링-평가환류라는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발전하게 됨
 - 그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하여 매 5년 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음
 -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하여 매년 추진 실적으로 목표달성률과 예산집행률을 중심으로 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대상으로서 국민의 인식 내 욕구 변화, 전달체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사업별로 일부 실시되고 있으나 저출산 극복관련 종합적인 측면에서는 규칙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저출산 및 고령사회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매년 다양한 측면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 2015년도에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수립 준비 등과 관련하여 미래 가임세대인 청소년층의 인식, 일반국민의 인식 및 욕구, 저출산정책 전달체계 상 장애요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함

- 모니터링 결과, 저출산 극복과 관련 현재와 미래 정책대상의 인식(가치관)은 비관적으로 나타난 반면, 정책에 대한 욕구는 매우 큰 것

으로 나타나 그만큼 정책 집행이 국민의 욕구를 제대로 혹은 충분히 충족시켜주지 못하여 출산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음.

○ 미래가임세대인 청소년(중·고등학생)의 인식을 모니터링한 결과,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결혼과 출산이 청소년에게도 필수나 의무가 아닌 선택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경향은 여학생 그리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음.

○ 일반국민의 인식 및 욕구를 모니터링한 결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국가만의 것으로 보지 않고, 개인-가족-국가 모두의 문제이며 모든 주체가 균형있게 참여할 때 극복이 가능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책들이 낮은 지원수준, 대상 한정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체감도가 낮았다는 지적이 있으며,
- 특히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예산 등의 한계로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 그 결과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전달체계의 주축으로서 지자체의 역할 내지 역량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지자체의 조직체계가 미흡하고, 그로 인하여 총괄적인 기획력 및 기능 수행력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자체적인 분석 등에 기반한 정책 수립 및 실행보다는 외부 요인(지방의회의 정치 활동 등)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

- 공통적으로 홍보, 인신개선 등 일정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저출산 극복 관련 홍보 등을 주도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활동 상 장애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예산 부족에 따른 홍보사업의 비활성화 및 효과성 미흡을 지적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본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저출산 극복 노력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한 제언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 가능

- 미래 가임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이면 일관성 있게 수행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중요
 - 현재와 같이 극히 일부 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간헐적인 접근으로는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에 대한 청소년의 올바른 인식과 개인별 대처 방법을 제고하는 데에는 한계성 존재

-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과 관련하여 일반국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홍보·교육보다 정책 욕구 충족을 통한 접근이 중요
 - 이를 위해서는 결혼, 출산 및 자녀양육에 체감도가 큰 정책을 개발하고, 일단 도입된 정책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없이 충분한 지원 등 필요

-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관련 전담부서(과 단위)를 만들어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는 한편,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기획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 홍보사업의 경우에는 지자체 단위의 개별적 접근을 지양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고려함
 - 한편, 전국적인 홍보 이외에 특정 집단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경우를 위하여 시민단체의 홍보 활동을 활성화 필요
 - 이를 위하여 전문가 양성, 체계적인 홍보전략 수립과 더불어 충분한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 필요

부록 1. 청소년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인식조사 조사표

청소년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인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청소년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응답한 내용은 저출산 대응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생이 응답해준 모든 사항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성실하게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사표 작성 요령〉

- ☺ 모든 문항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본인이 평상시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응답해주세요.
- ☺ 각 질문을 읽고 해당되는란에 ■, ☑, ☒ 등으로 표시해주세요.
- ☺ 별도의 안내가 없는 경우에는 1개 문항 당 1개만 응답합니다.

1.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2. 학생은 몇 학년입니까?

- ① 중학교 1학년 ② 중학교 2학년 ③ 중학교 3학년
④ 고등학교 1학년 ⑤ 고등학교 2학년

4. 학생은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 ① 적당하고 생각하는 자녀수 : ____명 ② 아직 모르겠다

5. 학생은 아들을 꼭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① 예 ② 아니오 ③ 아직 모르겠다

6. 학생은 자녀에 대한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 안함	전혀 찬성 안함
1)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2)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3)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4)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5)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I. 다음은 현재 자녀를 적게 낳는 사회현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학생은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적게 낳는 현상(저출산현상)과 그 문제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자주 들어보았다 ② 가끔 들어보았다
③ 별로 들어보지 않았다 ④ 전혀 들어본 적 없다

1-1. (위 질문 1에서 ①, ②에 응답한 경우) 누구로부터 또는 무엇을 통해 우리나라 저출산현상 및 문제점에 대해 들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보기〉		
<input type="checkbox"/> ① 선생님	<input type="checkbox"/> ② 가족	<input type="checkbox"/> ③ 친구
<input type="checkbox"/> ④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	<input type="checkbox"/> ⑤ 교과서	<input type="checkbox"/> ⑥ 라디오
<input type="checkbox"/> ⑦ TV	<input type="checkbox"/> ⑧ 인터넷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무엇:)

부록 2. 저출산·고령화 대응 관련 국민 욕구 조사 조사표

저출산·고령화 대응 관련 국민 욕구 조사 (2015년도)

안녕하십니까. 금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제3차 저출산고령 사회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민의 욕구를 파악하고자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법에 의거하여 선생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사 결과는 향후 국가 정책 수립 등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따라서 바쁘시더라도 잠깐 시간을 내어 정확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책관련

문1. 귀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여러 위험들 중 어떤 것이 가장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일자리 감소, 내수시장 위축 등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 ②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보장부담 증가
- ③ 군 병력자원 감소로 인한 국방력 약화
- ④ 세대간, 내-외국인간 사회갈등 증가

문2. 귀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위험들이 누구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가만의 문제이다
- ② 나만의 문제이다
- ③ 자녀 혹은 노부모 등 가족만의 문제이다
- ④ 나와 가족과 국가 모두의 문제이다.

문3. 귀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 ② 많은 노력은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효과가 충분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 ③ 일부 영역에만 한정하여 노력하고 있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 ④ 예산 등의 한계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4. 귀하는 그동안 정부에서 실시한 저출산 대응 정책 중 어떠한 정책이 비교적 잘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주거, 일자리 등 청년세대 결혼기반 마련
- ② 난임부부 지원 등 임신·출산 지원
- ③ 보육, 아이돌보미 등 자녀돌봄 지원
- ④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 지원

문5. 귀하는 그동안 정부에서 실시한 고령화 대응 정책 중 어떠한 정책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초연금 도입 등 노후 안정적 생활을 위한 소득보장
- ② 고령자 고용 지원
- ③ 장기요양등급 확대 등 건강한 노년기 삶을 위한 건강보장
- ④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여가 지원

문6. 그동안 정부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 중 부족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 정책의 가지 수는 많지만 진작 나에게 해당되는 정책은 없었다.
- ② 지원 수준 등이 현실과는 맞지 않았다
- ③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가 부족하여 실제 이용이 어렵다.
- ④ 홍보가 부족하여 정책에 대하여 잘 알 수 없었다.

문7. 귀하는 노력하면 저출산·고령화의 문제가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 ①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② 쉽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③ 출산율이 기대만큼 높아지기는 어렵겠지만 고령사회에는 어느 정도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 ④ 출산율이 기대만큼 높아지지 않아 고령사회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8. 귀하는 향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구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부의 정책 강화
- ② 기업의 적극적 협조
- ③ 국민의 능동적 참여
- ④ 정부-기업-국민 모두의 균형 있는 참여

문9. 귀하는 향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부문에서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부문**
- ② 가족친화적 고용문화 조성, 일가정양립 지원 등 **고용부문**
- ③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재정부문**
- ④ 보육,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등 **돌봄부문**

문10. 귀하는 향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2가지를 선택하여 응답바랍니다.

1순위: ____ 2순위: ____

- ① 청년층이 결혼을 늦추거나 하지 못하는 원인 해소
- ② 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 ③ 어린이집 등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및 질적 수준 향상
- ④ 일-가정 균형이 가능한 환경 및 문화 조성
- ⑤ 다자녀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
- ⑥ 동거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 대한 지원

문11. 귀하는 향후 고령자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2가지를 선택하여 응답바랍니다.

1순위: ____ 2순위: ____

- 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도입, 개인연금 활성화 등 소득보장 정책
- ② 장기요양보험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의료비 경감 정책
- ③ 국가 예산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고용연장 등 고령자 고용 정책
- ④ 노인거주주택 개조, 저상버스 도입 등 고령친화적 환경조성 정책
- ⑤ 자원봉사 인프라 확충, 문화바우처 제공 등 여가활동 지원정책
- ⑥ 독거노인 보호, 노인학대 예방 등 노인권익 증진 정책

일반사항

※ 응답자 특성

성별	<input type="checkbox"/> ① 남성 <input type="checkbox"/> ② 여성
연령	<input type="checkbox"/> ① 20대 <input type="checkbox"/> ② 30대 <input type="checkbox"/> ③ 40대 <input type="checkbox"/> ④ 50대 <input type="checkbox"/> ⑤ 60대
결혼여부	<input type="checkbox"/> ① 기혼(사별 혹은 이혼 포함) ② <input type="checkbox"/> 미혼
자녀수	___명 (임신 포함)

※ 문12~문13-1은 20대~40대(20세~49세)만 질문

문12. (미혼인 경우에만 질문) 귀하가 현재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고용이 불안정해서(실업상태 혹은 비정규직이어서)
- ② 집 장만이 어려워서
- ③ 결혼생활과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어서
- ④ 자기 발전 등을 위하여
- ⑥ 기타()

문13. (기혼인 경우에만 질문) 귀하는 (추가)자녀계획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13-1. (문13에서 ② 응답자만) 더 이상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고용이 불안정해서(혹은 소득이 적어서)
- ② 일과 가정생활(육아)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워서
- ③ 자녀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양육비·교육비 포함)
- ④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
- ⑤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 ⑥ 기타()